

# 메콩 개황

2019.11

Cambodia

Laos

Myanmar

Thailand

Viet Nam



# 차례



## I 메콩 일반

- 1. 메콩 개관 6
- 2. 메콩 협력체 18
  - 1) 확대메콩지역(GMS) 프로그램 19
  - 2) 메콩강위원회(MRC) 22
  - 3) 메콩연구소(MI) 25
  - 4) 애크맥스(ACMECS) 26
  - 5) 아세안-메콩강 유역 개발협력(AMBDC) 28
  - 6) 캄·라·미·베 협력(CLMV) 29
  - 7) 캄·라·베 개발삼각지역(CLV-DTA) 29

## II 한-메콩 협력

- 1. 한-메콩 개관 36
  - 1) 발전 개요 36
  - 2) 정치·외교 관계 38
  - 3) 경제 교류 38
  - 4) 인적 교류 38
- 2. 한-메콩 협력 체제 40
  - 1) 한-메콩 정상회의 40
  - 2)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41
  - 3) 한-메콩 고위관리회의 53
- 3. 한-메콩 협력 현황 54
  - 1) 정치·외교 분야 54
  - 2) 경제·통상 분야 59
  - 3) 개발 협력 분야 67
  - 4) 한-메콩 협력기금 70

## III 여타 국가와의 협력

- 1. 미-메콩 협력 74
- 2. 일-메콩 협력 78
- 3. 중-메콩 협력 80
- 4. 인도-메콩 협력 83
- 5. 여타 국가와의 협력 85



# I

## 메콩 일반

1. 메콩 개관
2. 메콩 협력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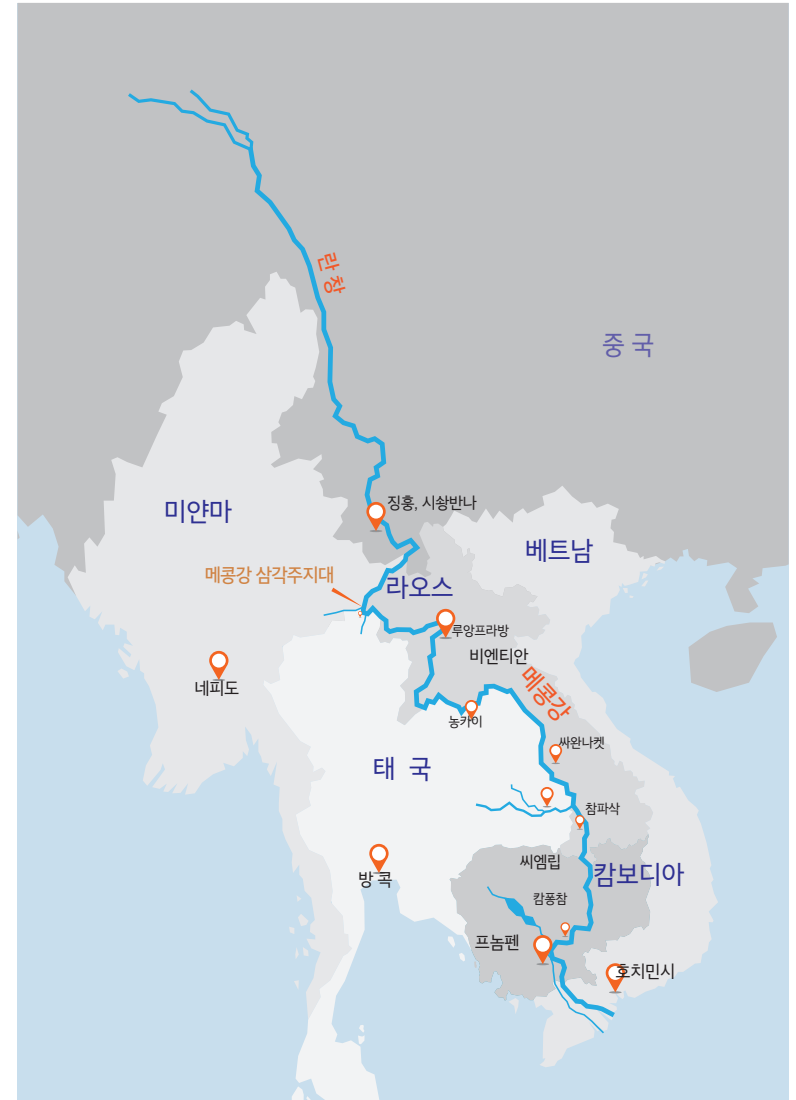
# 1. 메콩 개관

## ■ 메콩(Mekong) 강

- 중국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하여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로 흐르는 강
- 동남아에서는 가장 길고, 아시아에서는 일곱 번째로 긴 강(총 4,909km, 유역 면적 약 80만km<sup>2</sup>)
- 전체 유역 중 중국이 20%, 캄보디아 20%, 라오스 25%, 미얀마 3%, 태국 23%, 베트남 8% 차지
- ‘모든 강들의 어머니’라는 의미로, 유역국의 역사·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지대한 영향
-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인 내륙 어업지

## ■ 메콩 5개국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메콩강과 메콩 5개국 지도

## 🔍 메콩(Mekong) 강, 모든 강의 어머니

메콩강은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해 인도차이나 반도까지 길게 뻗은 강으로, 세계에서 열두 번째로 긴 강이다. 자그마치 여섯 나라(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가 유역 면적을 나눠 가지는데, 각국에서 비슷하지만 서로 다르게 불리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메콩’(Mekong)이라는 강의 이름은 태국어와 라오스어 명칭인 ‘메남콩’(태국어 แม่น้ำโขง, 라오스어 ແມ່ນໍ້າຂອງ)에서 유래한다. ‘메’는 ‘어머니’, ‘남’은 ‘강’, ‘콩’은 ‘모든’을 의미하므로 메남콩은 ‘모든 강의 어머니’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이를 음차한 ‘메이공허(湄公河)’ 혹은 ‘란창강(瀾滄江)’이라고 부르며, 베트남에서는 하류에서 9개의 하천으로 갈라지는 모습을 본떠 아홉 마리 용의 강이란 뜻의 ‘송끄우롱’(구룡강, Sông Cửu Long) 혹은 ‘송메콩’(sông Mekong)이라고 부른다. 캄보디아에서는 크메르어로 큰 강(great river)라는 의미의 ‘톤레 톰’ 혹은 ‘톤레 메콩’이라 부르며, 미얀마에서는 메콩강이란 뜻의 ‘메캉밧’이라 부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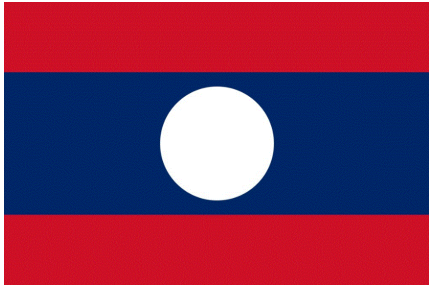


## ■ 캄보디아



국명	캄보디아 왕국(The Kingdom of Cambodia)
면적	181,035km <sup>2</sup> (남한의 약 1.8배)
수도	프놈펜(Phnom Penh)
우리나라와의 시차	2시간 늦음
정체	입헌군주제
정부 형태	의원내각제
언어	크메르어(90% 이상),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
화폐 단위	리엘(Riel)
민족 구성	크메르족(90%), 소수민족(베트남, 중국, 참족, 고산족 등)
종교	불교(95%), 기타(5%)
기후	열대성 몬순 기후로, 고온다습

■ 라오스



국명	라오인민민주공화국(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면적	23.6만km <sup>2</sup> (한반도의 약 1.1배)
수도	비엔티안(Vientiane)
우리나라와의 시차	2시간 늦음
정부 형태	인민민주공화제 (라오인민혁명당이 유일 정당)
언어	라오어, 성조가 있으며 태국어와 유사(라오어는 6성, 태국어는 5성)
화폐 단위	깍(Kip)
민족 구성	공식적으로는 50개의 종족이 있으며 (2018.12월 라오스 국회 채택), 라오름(60%), 라오룽(30%), 라오승(10%) 등으로 대별
종교	불교(69%), 토속신앙(28%), 기독교(1.5%) 등
기후	열대성 몬순 기후로, 우기(5~10월)와 건기(11~4월)로 나뉨

■ 미얀마



국명	미얀마(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면적	676,577km <sup>2</sup> (한반도의 약 3배)
수도	네피도(Nay Pyi Taw)
우리나라와의 시차	2시간 30분 늦음
정부 형태	대통령 중심제
언어	미얀마어(공용어), 기타 소수어
화폐 단위	짜트(Kyat)
민족 구성	버마족(68%), 산, 까친, 꺼인, 몬, 친, 라카인 등 135개 민족
종교	불교(88%), 기독교(6%), 이슬람(4%) 등
기후	열대성 몬순 기후로, 우기(5~10월)와 건기 구분 뚜렷

■ 태국



국명	타이 왕국(The Kingdom of Thailand)
면적	51.3만km <sup>2</sup> (한반도의 2.3배)
우리나라와의 시차	2시간 늦음
수도	방콕(Bangkok)
정체	입헌군주제
정부 형태	내각책임제
언어	타이어(공용어), 중국어, 말레이어
화폐 단위	바트(Baht)
민족 구성	타이족(85%), 화교(12%), 말레이족(2%), 기타(1%)
종교	불교(95%), 이슬람교(4%), 기독교(1%)
기후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

■ 베트남



국명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면적	330,341km <sup>2</sup> (한반도의 1.5배)
수도	하노이(Ha Noi)
우리나라와의 시차	2시간 늦음
수도	방콕(Bangkok)
언어	베트남어(공용어, 발음의 길이와 높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6성조)
화폐 단위	동(Dong)
민족 구성	비엣족(킨족) 86%, 타이·므엉·크메르 등 53개 소수민족, 화교(약 100만 명)
종교	불교(12%), 가톨릭(7%) 등
기후	북부는 아열대성, 남부는 열대몬순

### ■ 메콩 전체 주요 지표

- 인구 : 약 2억 4,300만 명
- 면적 : 1,938,517km<sup>2</sup>
- GDP : 약 8,660.93억 달러 (전 세계 총 GDP의 0.98%)
- 총 교역량 : 1조 469억 달러 (수출 : 5,215억 달러/ 수입 : 5,253억 달러)

### ■ 메콩 일반

- 면적

(인구 기준 : 2018년)

국가	면적(km <sup>2</sup> )	인구
캄보디아	181,040 (한반도 0.8배)	1,620만 명
라오스	236,800 (한반도 1.1배)	700만 명
미얀마	676,590 (한반도 3배)	5,390만 명
태국	513,120 (한반도 2.3배)	6,920만 명
베트남	330,967 (한반도 1.5배)	9,650만 명
합계(A)	1,938,517km <sup>2</sup>	약 2억 4,300만 명

출처 : 면적(World Bank) / 인구(UN)

- 경제 현황(2018)

국가명	GDP (억 달러)	1인당 GDP (달러)	수출 (억 달러)	수입 (억 달러)	교역 (억 달러)
캄보디아	245.72	1,512	124.1	196.8	320.9
라오스	181.32	2,568	55.3	72.8	128.1
미얀마	712.15	1,326	156.5	214.5	371
태국	5,049.93	7,274	2,501.4	2,448.5	4949.9
베트남	2,449.48	2,564	2,378.1	2,321.1	4699.2
합계(A)	8,638.6	(평균) 3048.8	5215.2	5253.7	10,469

출처 : GDP(The World Bank), 1인당 GDP (세계은행) / 경제성장률(IMF) / 수출, 수입, 교역(IMF)

### ■ 메콩 지역의 잠재력

-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13억 명)과 인도(11억 명)를 잇는 연결 지역으로 아세안 인구(6억 명)를 합하여 총 30억 명에 이르는 거대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투자의 전략적 요충지
- 정부 주도의 개발정책으로 메콩 지역의 경제개방이 확대되어 역외 국가의 진출이 용이하므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통해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 모색
- 연간 6%에 달하는 고속 경제 성장, 내수시장 및 금융시장의 빠른 성장 등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한국의 진출 가능 다대



- 한반도의 4배 길이로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유량을 보유한 메콩강의 인근 지역은 수자원 관리 및 인프라 건설 등 초국경적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수력발전, 목재, 광물자원 등이 풍부해 막대한 개발 잠재력 보유
  - ※ 베트남은 원유, 미얀마는 천연가스, 태국은 고무, 라오스는 목재, 캄보디아는 수산물이 풍부
  - ※ 특히 미얀마의 경우, 주요 광물 자원인 석탄·철·구리·아연·니켈 등 매장
- 인구는 약 2.4억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노동인구 비중이 높아 아세안 내에서도 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 ※ 미얀마·라오스는 이미 섬유·의류산업의 요충지로 각광
- 메콩 5개국은 모두 아세안 국가로,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 달성은 동 지역의 경제성장에 탄력을 부여하며, 2020년에는 총 GDP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메콩 지역의 역사

동남아시아 메콩 5개국은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하고 있다. 이전에는 모두 독립 왕국을 유지하다가, 태국을 제외한 4개국은 19세기 후반 프랑스(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와 영국(미얀마)의 식민지배를 받았으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독립을 되찾았다. 언어나 생활상 등 고유의 문화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비엔티안이나 방비엥에서는 프랑스 빵집과 정통 레스토랑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등 옛 역사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후 베트남의 남북 분단과 베트남전쟁을 거치며, 베트남과 라오스에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섰다. 한국과 메콩 국가가 걸어온 길은 닮았다. 식민지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났으며 냉전 시대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과 자존을 지키며 성장했다.



라오스의 프랑스 빵집

## 2. 메콩 협력체

### ■ 주요 협력체 및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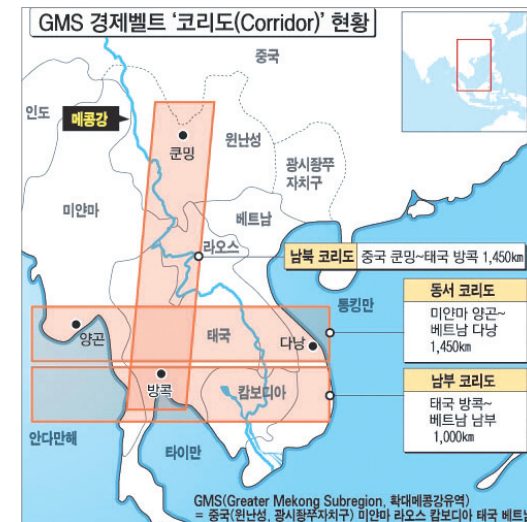
협력체	추진체	설립 연도	중점 분야
확대메콩지역 GMS 프로그램	ADB	1992	운송, 에너지, 통신, 환경, 인적자원 개발, 관광, 교역 촉진, 투자, 농업
메콩강위원회 MRC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1995	수자원 개발, 농어업 확충, 환경보호 등
메콩연구소 MI	중국(윈난성),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1996	인적자원 개발
에크멕스 (ACMECS)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2003	교역 및 투자 촉진, 농산업 협력, 수송망 연결, 관광 협력, 인적자원 개발, 공중보건
아세안-메콩강 유역 개발협력 (AMBDC)	중국, 아세안 10개국	1996	인프라 구축, 교역 및 투자, 농업, 천연자원, 중소기업 지원, 관광,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 협력
캄-라-미-베 협 력(CLMV)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2004*	무역 및 투자, 농업, 산업 및 에너지, 교통, 정보기술, 관광 산업, 인력자원 개발
캄-라-베 개발삼각지역 (CLV-DTA)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1999	-

\* 제1차 정상회의 개최 기준

### 1) 확대메콩지역(GMS) 프로그램

- 1992년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주도 하에 추진된 확대메콩지역(Greater Mekong Subregion, GMS) 개발사업
- 사업 목표 : 연계성 강화, 경쟁력 증진, 공동체 의식 함양
- 교통, 에너지, 환경, 천연자원 개발, 인적자원 개발, 관광, 교역 및 투자, 통신, 농업 등 주로 9개 분야에서 프로젝트 형식으로 사업 추진
- 메콩 5개국과 중국 윈난성을 아우르는 남북·동서·남부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중심 5단계 인프라 개발 전략
  - 경제회랑은 교통인프라 개발을 기반으로 주변의 산업발전과 생활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경제벨트를 의미

메콩 지역 경제회랑



출처 : KOTRA

## 경제회랑 개발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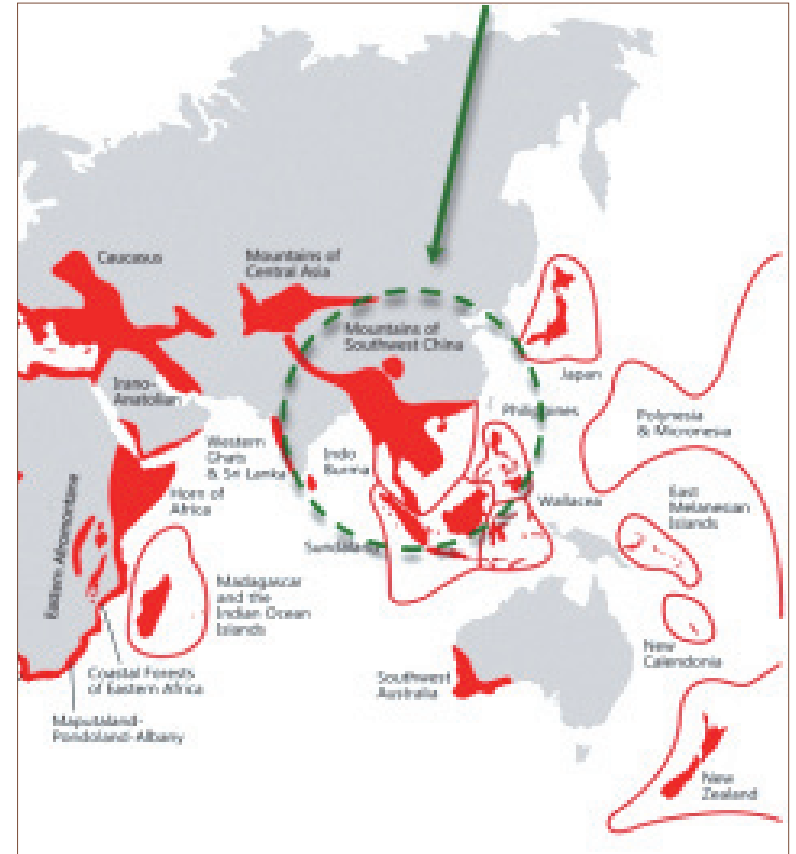
1단계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transport corridor)
2단계	국경 지역 교역 촉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trade facilitation corridor)
3단계	국경 이외 지역까지 물류시스템 구축(logistics corridor)
4단계	도시 지역 전반의 경제 인프라 구축(urban development corridor)
5단계	국경 지역 경제특별지구 설립(economic corridor)

### 메콩과 생물다양성

메콩 5개국은 '인도-미얀마 생물다양성 핫스팟(biodiversity hotspot) 지역'에 속해 있다. 이들 지역은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고유종의 비율 또한 매우 높다.

현재까지 각 메콩 국가에서 발굴된 기록 종수는 캄보디아 약 7,000종, 라오스 약 14,000종, 미얀마 약 20,000종, 태국 약 37,000종, 베트남 약 25,000종이다. 하지만 그동안 생물다양성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종이 발굴될 예정이다.

1988년에 처음 제안된 생물다양성 핫스팟 지역은 현재 전 세계 34곳으로, 지표면의 1.4%에 불과하지만,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의 50%, 포유류·조류·양서류의 75%를 포함하는 보존 필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메콩 국가 생물다양성 지도

## 2) 메콩강위원회(MRC)

### 가. 의미

- 메콩강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M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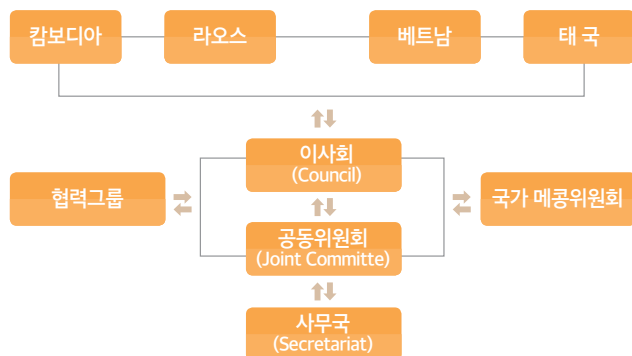
### 나. 설립 배경

- 1995년 '메콩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력에 관한 협약'에 기초해 설립
  - 냉전 시기 미국의 전략을 반영한 조직인 메콩위원회(Mekong Committee, MC)를 모태로 함

### 다. 회원국

- 회원국 :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태국
  - 대화상대국 : 미얀마, 중국
  - 기술적·재정적 협력국 : 뉴질랜드, 호주,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 라. 조직도



- 이사회 : 4개국 환경부·수자원부 장관으로 구성. 수자원 관리 및 개발에 관한 상호 결론 도출
- 공동위원회 : 4개국 국장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로 구성, 정책 이행을 위한 회의 연 2회 개최
- 사무국 : Office of CEO 아래 1) Administration Division, 2) Planning Division, 3) Environment Management Division, 4) Technical Support Division으로 구성

### 마. 현황

- 핵심 하천 유역 관리 및 메콩강 하부 댐 건설 감독
- 2010년 메콩협약 체결 15주년 기념 제1차 정상회의 개최
- 2014년 제2차 정상회의 개최
  - '기후 변동으로 인한 메콩강 유역의 물자원·에너지·식량자원'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동 계기 '호치민시 선언' 채택
- 2018년 제3차 정상회의 개최
  - '메콩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 노력 및 파트너십 강화'를 주제로 개최
- 2030년까지 회원국에 의한 재정적 자급자족 목표

### 메콩과 수자원

메콩강 유역국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수자원 관리다. 약 7,000만 명에 육박하는 강 유역 인구와 농·어업 종사자에게 메콩강은 젖줄과도 같은 강이지만, 메콩강은 가뭄과 홍수 등 자연 재해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류 국가 중국이 1995년 이후 1,750MW급 징홍(景洪)댐을 비롯해 초대형 댐을 10개나 건설하며 방류량을 조절함에 따라 동남아시아 하류 국가들과의 마찰을 빚고 있다. 메콩강 하류의 수위가 낮아지면 농업수·생활용수 부족과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류 국가 유역민이 떠안게 된다.

이에 대해 유엔측(UNDP)은 2009년 “중국의 댐 건설로 메콩강의 유량과 흐름이 변화하고 수질 악화와 생물다양성 파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기도 했다(『Fresh water under threat』 리포트, 13쪽).



가뭄 피해에 취약한 메콩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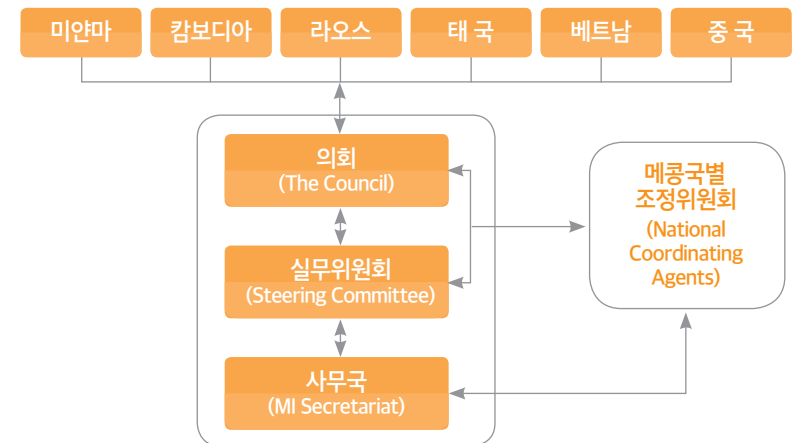
### 3) 메콩연구소(Mekong Institute, MI)

#### 가. 설립 배경

- 1996년도 뉴질랜드와 태국의 지원으로 태국 동북부 콘캔대학교 내 설립
- 2003년 메콩 5개국 및 중국 정부 간 합의에 따라 비영리 조직으로 독립
- 2009년 메콩 국가들 간의 합의에 따라 정부 간 국제기구로 승격

#### 나. 조직 및 구성

- 조직도



- 의회 : 사업계획, 예산, 실무위원회 제안 최종 승인
- 실무위원회 : 정책 조언, 전략 구축, 예산 관리, 경영진·사무국 감사
- 사무국 : 실무 담당, 각 나라의 전문 인력 참여

### 다. 주요 사업 분야

- 3대 사업 분야 : 1) 교역과 투자 촉진 사업, 2) 지속가능한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3) 인적자원 교류 사업
- 현지 공무원과 기업인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

### 라. 한국과 메콩연구소의 관계

- 한-메콩 협력기금 사무국 역할

## 4) 애크맥스(ACMECS)

### 가. 의미

- ACMECS는 역내 주요 3대 강인 미얀마 에와야디(Ayeyawady) 강, 태국 차오프라야(Chao Phraya) 강 및 메콩(Mekong) 강의 경제협력 전략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을 의미

### 나. 설립 배경

- 탁신 태국 총리가 메콩 국가 간 경제를 통합하고 역내 개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3년 설립 (바간 선언(Bagan Declaration), 2013.11월 발표)
- 목표 : 지역경제 발전과 개발격차 축소
  - ▲국경 인접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촉진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으로 농업 및 제조업 이전 ▲고용 확대 및 회원국 간 소득격차 축소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평화, 안정, 공동번영 추구

### • 8대 우선협력 분야

- ▲무역 및 투자 촉진 ▲농업협력 ▲산업 및 에너지 협력 ▲수송망 연결 ▲관광협력 ▲인적자원 개발 ▲공중위생 ▲환경협력

### 다. 회원국

- 회원국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이상 원회원국), 베트남(2004.5월 가입)

### 라. 추진 현황

- 2003년 제1차 ACMECS 정상회의에서 향후 10년간 46개의 공동 프로젝트와 224개의 양자 간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담은 경제협력 전략 채택
- 2010년 11월 제4차 ACMECS 정상회의에서 ‘ACMECS 행동계획(2010~2012)’ 채택
- 2018년 6월 제8차 정상회의에서 메콩 공동체 설립을 위한 「방콕 선언」과 이를 이행할 ‘ACMECS Master Plan(2019~2023)’을 채택함으로써 ACMECS 출범 15주년을 맞이하여 역내 협력 분야 확대 및 구체화를 위한 청사진 제시
  - (정상회의 주제) “통합되고 연결된 메콩 공동체를 향하여(Towards an Integrated and Connected Mekong Community)”
  - (방콕 선언) ‘2030년까지 ACMECS 연계성 구축(Building ACMECS Connect by 2023)’ 비전 선포

- (ACMECS Master Plan) 방콕 선언 행동계획으로서 3개 축(3S)을 중심으로 이행 방안 구체화

※ 3S : ▲Seamless ACMECS ▲Synchronized ACMECS ▲Smart and Sustainable ACMECS

- 실질적인 연계성 증진을 위해 역내 인프라 확충 등 협력 범위를 보다 확대

- 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공동의 기금 조성 목표 등을 명시

### 마. 최근 동향

• 2019년 7월 ACMECS와 6개 개발 파트너 국가와 고위관리회의(SOM) 각각 개최

※ 2019년 3월 ACMECS를 대표하여 태국이 1차로 6개국 (한국,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을 개발 파트너 국가로 초청하였고, 6개국 모두 참여 결정

### 5) 아세안-메콩강 유역 개발협력(ASEAN·Mekong Basin Development Cooperation, AMBDC)

• 제5차 ASEAN 정상회의(1995년, 태국)에서 설립이 확정되어 1996년 설립

• 목 표 : 상호 대화와 협력을 통한 ASEAN 후발가입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경제발전 지원 및 역내 개발격차 축소와 경제통합 가속화

• 8대 중점 분야 : 인프라 구축, 교역 및 투자, 농업, 천연자원, 중소기업 지원, 관광,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 협력

• 참여국 : 중국,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6)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협력(CLMV)

• 참여국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아세안 공동체 후발가입국)

• 목 적 : CLMV 국가간의 경제협력 촉진 및 메콩 4개국과 아세안 나머지 6개국 간 개발 격차 축소

• CLMV 정상회의 연 1회 개최 및 정상회의에 앞서 고위관리·장관급 회의 개최

• 제1차 CLMV 정상회의 (2004.11월, 라오스 비엔티안)

- CLMV 국가 간의 경제협력과 통합 내용을 담은 「비엔티안 선언」 채택  
 - 7대 우선협력 분야 선정 : ▲무역 및 투자 ▲농업 ▲산업 및 에너지 ▲교통 ▲정보기술 ▲관광산업, 인력자원 개발

### 7)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개발삼각지역(Cambodia-Laos-Viet Nam Development Triangle Area, CLV-DTA)

• 1999년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대표의 비공식 만남으로 결성

- 1999년 이후 정상회의 격년 개최  
 - 공동조정위원회(Joint Coordination Committee, JCC) 연례 개최  
 -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 연례 개최

• 목 적 : 정부 간 정치·안보·경제·사회 및 문화 관련 협력



제10차 CLV-DTA 정상회의 (2018.3월)

- 회원국 :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 ※ 경제 규모 면에서 베트남이 사실상 CLV-DTA의 리더 역할
- 1999년 10개의 국경 주만을 대상으로 회의 개최 → 2009년 13개 주로 대상 지역 확대 → 2018년 베트남이 3개국 전 국토를 대상으로 회의 개최 제안
- 2018년 3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10차 CLV-DTA 정상회의 개최
  - 처음으로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세안(ASEAN)이 개발 파트너로 참여
- 주요 개발 참여국 및 기관 : 일본, 아시아개발은행(ADB)

## ASEAN 개관

- 명칭 :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창설 배경
  - 베트남전 본격화, 인도차이나 공산주의 확산 등 국제정세 급변에 따른 공동 대응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1967년 8월 8일 ASEAN 5개국 주도로 결성
- 회원국 (총 10개국)
  - 1967년 :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 이 후 : 브루나이(1984), 베트남(1995), 라오스(1997), 미얀마(1997), 캄보디아(1999)
- 대화상대국
  - 대화상대국(10) :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EU
  - 부분대화상대국(4) : 파키스탄,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 개발파트너 : 독일, 칠레
  - 비국가 대화파트너 : UNDP
- 사무국 현황
  - 사무총장(1명), 사무차장(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총무 담당 각 1명씩)
  - ※ 현재 립족 호이(Lim Jock Hoi) 사무총장 재임(~2022.12.31.)



## 한-아세안 관계 발전

- 1989.11. 부분 대화관계 수립
- 1991. 7. 완전 대화관계 격상
- 1997.12. 제1차 아세안+3 / 한-아세안 정상회의
- 2004. 4. '한-아세안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 2005.12.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체결
- 2009. 3. 한-아세안센터 출범
- 2009. 6. 대화관계 수립 20주년 기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제주)
- 2010.10.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 2012. 9. 주 아세안 대표부 설립
- 2014.12. 대화관계 수립 25주년 기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부산)
- 2017. 9. 아세안문화원 개원
- 2019.11.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부산)



# II

## 한-메콩 협력

1. 한-메콩 개관
2. 한-메콩 협력 체제
3. 한-메콩 협력 현황

# 1. 한-메콩 개관

## 1) 발전 개요

- 1992. 12. 메콩위원회 원조공여국회의 참가
- 2010. 10. 제1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시 우리 정상이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제안
- 2011.10.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 「한강 선언」 채택
- 2012. 7. 제2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 한-메콩 협력기금 신설 합의
- 2013. 6. 제3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 「한-메콩 협력기금 신설 및 운영 세칙(TOR)」 채택
- 2013. 5. 제1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 2014 한-메콩 교류의 해
- 2014. 5. 제2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 2014. 7. 제4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 「한-메콩 행동계획(2014-2017)」 채택
- 2015. 7. 제3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 2015. 8. 제5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 메콩연구소(MI)를 한-메콩 협력기금 사무국으로 지정  
- 「한-메콩 협력기금 TOR」 채택
- 2016. 6. 제4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 2016. 7. 제6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 2017. 9. 제7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 「한-메콩 행동계획(2017-2020)」 채택
- 2017. 10. 제5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 2018. 8. 제8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 2018. 12. 제6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 2019. 8. 제9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 2019. 10. 제7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 2019. 11.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 2) 정치·외교 관계

- 메콩 5개국과 모두 외교 관계 수립  
※ 북한도 5개국과 수교
- 2011년 이후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연례 개최  
※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2019.11.27., 부산)

## 3) 경제 교류(2018)

- 교역 : 845억 달러
- 투자 : 37억 달러
- 인프라 수주 : 67억 달러

## 4) 인적 교류

- 상호 방문객(2018)
  - 상호 방문자 수 : 약 690만 명
  - 방한 메콩인 : 약 113만 명, 방메콩 한국인 : 약 577만 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방한	499,757	583,726	580,116	698,449	625,321	828,031	933,153	1,133,143
방메콩	1,942,732	2,364,661	2,615,811	2,528,443	3,149,640	3,602,952	4,714,593	5,772,250
계	2,442,489	2,948,387	3,195,927	3,226,892	3,774,961	4,430,983	5,647,746	6,905,393

※ 한국관광공사 관광입국 통계(2018년 기준)

## • 메콩국 국민 방한(입국)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캄보디아	12,438	18,567	21,172	24,179	25,800	30,002	30,795	33,395
라오스	2,477	3,294	5,526	6,186	6,051	8,062	9,201	11,924
미얀마	70,168	67,917	63,470	59,797	58,936	68,458	69,906	71,094
태국	309,143	387,441	372,878	466,783	371,769	470,107	498,511	558,912
베트남	105,531	106,507	117,070	141,504	162,765	251,402	324,740	457,818
합계	499,757	583,726	580,116	698,449	625,321	828,031	933,153	1,133,143

※ 한국관광공사 관광입국 통계(2018년 기준)

## • 우리 국민 메콩국 방문(출국)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캄보디아	342,810	411,491	435,009	424,424	395,259	357,194	345,081	301,770
라오스	34,707	53,829	81,799	96,085	165,328	173,260	170,571	174,405
미얀마	22,524	34,805	54,934	58,472	63,715	64,397	65,829	72,852
태국	1,006,283	1,163,619	1,295,342	1,116,493	1,372,989	1,464,218	1,717,867	1,787,817
베트남	536,408	700,917	748,727	832,969	1,152,349	1,543,883	2,415,245	3,435,406
합계	1,942,732	2,364,661	2,615,811	2,528,443	3,149,640	3,602,952	4,714,593	5,772,250

## 2. 한-메콩 협력 체제

### 1) 한-메콩 정상회의

- 2018년 11월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결정
-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한국 개최 예정 (2019.11.27., 부산)
- 한-메콩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더불어 한-아세안 협력의 실질적·핵심적 축으로서 다자 및 소다자 협력의 새로운 모범으로 자리매김
- 「한강-메콩강 선언」을 통한 한-메콩 협력 결과 점검·평가 및 미래 비전 제시 → 한-메콩 협력 한층 강화

### 2)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 가. 개최 배경

- 2010년 10월 제1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시 우리 정상이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제안하였으며, 메콩측이 이를 지지
- 아세안의 역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지역인 메콩 지역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세안 통합 및 공동체 형성에 기여

#### 나. 운영 방식

- 회원국 : 한국 및 메콩 5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 개최 형식 : 연례회의(연 1회)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시 개최  
- 지금까지 3차례 한국에서 개최(2011·2014·2017년도)
- 한국과 메콩 국가 공동 주재(메콩 측은 국명 알파벳 순서로 의장 수임)

#### 다. 회의 결과

-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2011.10월, 서울)
  -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정례화
  - 우선협력 분야, 협의체 운영 방식 등을 담은 「한강 선언」 채택
- 상호 번영을 위한 한-메콩 간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한강 선언 (Han-River Declaration)」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2011.10월)

- 목표 :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및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
- 원칙 : ▲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괄적인 관계 발전 ▲ 상호 호혜적인 양자 관계 구축 ▲ 일-메콩 협력 등 여타 협력체와 상호보완적 발전 추구
- 3대 비전(6대 우선협력 분야) : 아세안 연계성(▲ 인프라 ▲ 정보통신기술), 지속가능한 개발(▲ 녹색성장 ▲ 수자원 개발), 인간중심 개발(▲ 농업 및 농촌 개발 ▲ 인적자원 개발)
-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운영 방향
  - : 개발협력을 중점 의제로 하고 정치와 경제 협력에 대해 논의
  - : 매년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및 여타 회의와 연이어 개최
  - : 한국과 메콩 지역 국가 중 한 국가가 공동으로 주재하며, 메콩 지역 국가들은 알파벳 순서에 따라 의장국 수임



제2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2012.7월)

- 제2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2012.7월, 프놈펜)
  - 「제2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공동의장성명」 채택
    - : 6개 우선협력 분야에 대한 협력 상황 평가 및 신규 사업 논의
      - ▲ 아세안 연계성 증진 : 메콩 지역 내 교통연구소 설립 검토
      - ▲ 지속가능한 개발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적극 활용 합의, 한국과 메콩강위원회(MRC) 간의 협력 강화에 합의
      - ▲ 인간 중심 개발 : 메콩연구소(MI)와 '아세안 통합을 위한 통상정책 및 농업 가치사슬', '물류 분야 역량강화사업' 등 사업을 검토하기로 합의
  - 한-메콩 협력기금 신설 합의
  - '제1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개최 합의 (2013, 태국)
  - 2014년을 '한-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



제3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2013.6월)

- 제3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2013.6월, 반다르스리브가완)
  - 「제3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의 공동의장성명」 채택
  - 「한-메콩 협력기금 신설 환영 및 동 기금 TOR」 채택 환영
  - 아세안연계성 조정위원회(ASEAN Connectivity Coordination Committee, ACCC)와의 협력을 통해 메콩 지역의 연계성 증진에 기여하기로 합의
  - 한국 개발 모델인 '새마을운동 사업'을 메콩 지역에서 실시하기로 한 것을 환영
  - 2014년 베트남에서 '제2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개최 합의
  - 한-메콩 행동계획 수립을 위해 한-메콩 고위관리들에게 구체적인 전략·행동·절차 등에 대한 논의를 위임
  - 제4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의 한국 개최 합의 (공동의장국 : 태국)



제4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2014.7월)

- 제4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2014.7월, 서울)
  - 「제4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의 공동의장성명」 채택
  - 향후 3년간의 한-메콩 6개 우선협력 분야에 대한 협력 목표, 구체 사업을 제시한 「한-메콩 행동계획(ROK-Mekong Plan of Action, 2014-2017)」 채택
  - 6개 우선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 발굴 기대
  - 한-메콩 협력사업 신규 제안 및 승인 절차 관련 콘셉트 페이퍼 채택

「한-메콩 행동계획(2014-2017)」 요지

1. 개발협력 관련 우선협력 분야의 이행

- 아세안 연계성 증진
  - ▲ 인프라 : 향후 3년간 '메콩 지역 내 교통연구소 설립 지원사업' 실시
  - ▲ 정보통신기술(ICT) : 메콩 지역의 정보통신기술 관련 공무원을 한국에 초청하는 등 지식 공유 사업 추진키로 합의
- 지속가능 개발
  - ▲ 녹색성장 : 녹색성장 행동계획 개발을 통해 메콩강 인근 지역을 지원, 녹색 성장 전략 추진 시 메콩 국가들의 민간부문 참여, 국가적 차원의 녹색성장 전략 이행 과정에서 관련 정부 기관 지원
  - ▲ 수자원 개발 : 크랑폰리강 유역 관개시스템 개선 및 농업생산성 향상 사업 등을 시행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
- 인간 중심 개발
  - ▲ 농업·농촌 개발 : 한국의 대표적인 농촌 개발 사업인 새마을운동 사업을 통해 메콩 지역의 농촌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농업 분야의 인적역량 강화 등을 위한 기술 제공
  - ▲ 인적자원 개발 : 메콩연주소 주도로 「물류 분야 역량강화 사업」 실시 및 「GMS 남부 경제회랑 농업 가치사슬 증진 사업」 등 추진 계획

2. 한국의 대메콩 ODA 정책 및 한-메콩 협력기금 확대

- 한국은 메콩 국가들을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
- 한-메콩 협력기금은 메콩 지역 전체의 균형적 성장을 위해 향후 3년간 증액 예정
- 한-메콩 행동계획 이외에도 중·장기 협력사업 발굴 및 시행 예정

3. 한-메콩 교류 확대

- 한-메콩 간 우호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 준비
- 한국은 한국 내 메콩 지역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정보 제공에 기여하는 대국민 홍보 사업 중점 시행

4. 한-메콩 민·관 협력 확대

- 한-메콩 비즈니스포럼을 민·관 협력을 위한 구심체로 더욱 활성화

5. 소지역 협력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제5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2015.8월)

- 제5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2015.8월, 쿠알라룸푸르)
  - 「제5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의 공동 의장성명」 채택
  - 「한-메콩 협력기금 개정 운영 방식에 대한 컨셉 페이퍼」 채택 합의 및 이를 「한-메콩 협력기금 TOR의 부속서」로 반영
  - 한-메콩 협력 진전 상황 점검 및 협력의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
  - 한-메콩 협력기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메콩연소소를 동 협력기금의 사무국으로 지정





제6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2016.7월)



제7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2017.9월)

- 제6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2016.7월, 비엔티안)
  - 「제6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공동의장성명」 채택
  - 제1차 한-메콩 협력기금 지원 사업(7개) 최종 승인
  - 6개 우선협력 분야에 대한 협력 현황 평가
    - ▲ 아세안 연계성 증진 : 「메콩강 내륙수로 운송 연구 사업」 관련 차년도 상반기에는 내륙수로 운송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과 가능 사업 제안 예정
    - ▲ 지속가능한 개발 : 「아시아 산림협력기구(AFoCO)」의 조속한 설립 요청
    - ▲ 인간 중심 개발 : 메콩연구소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한-메콩 협력의 제도화가 진전되고 있는 점을 환영
- 제7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한국 개최 합의(2017)

- 제7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2017.9월, 부산)
  - 「제7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공동 의장성명」 채택
  - 2차 한-메콩 행동계획(ROK-Mekong Plan of Action,) 2017~2020 채택
  - 2011년 이후 한-메콩 협력 현황 평가
    - ▲ 제1차 한-메콩 행동계획(2014~2017)의 성공적 이행 ▲한-메콩 협력 기금 설립 및 운용 ▲한국의 대 메콩 양자 ODA 지원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연례 개최 ▲미국·일본 등 여타 대 메콩 공여국들과의 정책 공조의 지속적 확대
- 제2차 한-메콩 협력기금 지원 사업(6개) 승인

「한-메콩 행동계획(2017~2020)」요지

1. 아세안 연계성 증진

- ▲인프라 : 메콩 국가들의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도시-산단 개발 등 인프라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해 협력
- ▲정보통신기술(CT) : IT 분야의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아세안대학 이터닝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여타 사업 추진

2. 지속가능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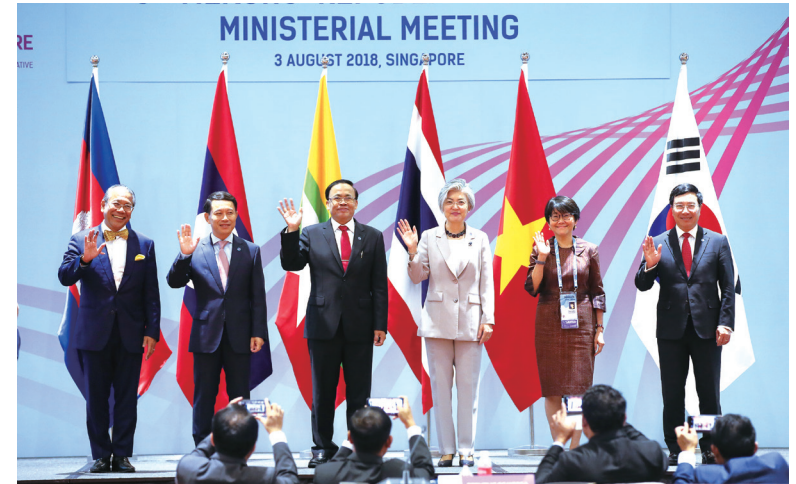
- ▲녹색성장 :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한 인력양성 사업을 지원, '한-메콩강 산림협력센터'를 통해 양측 간 산림협력 확대의 가교 역할 수행
- ▲수자원 개발 : 메콩강의 지속가능한 이용, 수자원 개발을 위한 기술 공유 및 전문가 파견을 통해 메콩 국가들의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지원, 캄보디아 '수자원 관리 사업'의 확산 방안을 모색

3. 인간 중심 개발

- ▲농업·농촌 개발 : 한국의 'CLMV 농촌공동체 개발 사업'과 같이 참여적 농촌 공동체 개발 모델을 통해 농업 생산기반 구축, 농업인력 육성, 농촌지도 사업 등을 지원
- ▲인적자원 개발 : 베트남의 '산·관·학 협력 모델 구축 사업'과 같은 산·관·학 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해 노력

4. 한-메콩 협력기금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

- 한-메콩 협력기금의 지속적 증액을 위해 노력
- 한-메콩 협력기금 사업 설명회 혹은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위한 실무 워크숍 개최



제8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2018.8월)

- 제8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2018.8월, 싱가포르)
  - 「제8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의 공동의장서명」 채택
  -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정상회의로 격상기로 합의
  - 신남방정책에 대한 메콩 국가의 지지 확보
  - 6개 우선협력 분야에 대한 협력 상황 평가
  - 한-메콩 협력기금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점검 및 사업 이행 가속화에 동의
    - ▲ 2016년 승인된 16개의 1차 사업 중 13개 이행 완료
    - ▲ 2017년 승인된 6개의 2차 사업 이행 점검 및 3차 사업 선정 추진 합의
  - 2018년 제6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한국 개최 합의
  - 2019년 제9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의 계기에 개최기로 합의 및 한국과 태국이 공동의장직 수임



제9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2019.8월)

- 제9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2019.8월, 방콕)
  - 「제9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공동의장성명」 채택
  - 2019년부터 정상급으로 격상되는 한-메콩 협력의 지속적 강화 방안 논의
  -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메콩 ODA와 한-메콩 협력기금 확대 ▲한-메콩 행동계획 이행 현황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등 협력 사업 설명
  - 자유무역주의 강조 및 자유무역을 저해하거나 제한하는 조치에 반대 한다는 인식 공유
  -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 현황 공유

### 3) 한-메콩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

#### 가. 개최 배경

-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 정례화
- 목 표 : 한-메콩 협력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 메커니즘 마련

#### 나. 운영 방식

-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개최
  - 2011년부터 매년 개최 중
- 각국 국장·부국장급 인사가 수석대표로 참석
-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사전준비 및 메콩 유역에서의 협력사업 현황 점검, 미래 협력 방향 등을 논의
- 2019년 한-메콩 고위관리회의(2019.6월, 방콕)



한-메콩 고위관리회의 (2019.6월)

### 3. 한-메콩 협력 현황

#### 1) 정치·외교 분야

- 우리는 메콩 5개국과 모두 수교  
 ※ 북한도 아웅산 테러사건으로 단교(1983.11월)했던 미얀마와 복교(2007.4월)함으로써 메콩 5개국과 모두 수교
- 연례적으로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와 한-메콩 고위관리회의에 참석, 메콩 국가와 정기 협의 채널 유지
- 한-메콩 정상 간 교환 방문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측의 경우 ASEAN, ASEAN+3 및 APEC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 계기 메콩 지역 순방
- 우리 정상의 메콩 5개국 방문(2003~현재)

국가명	우리 정상의 방문
캄보디아	(2006.11월), (2009.10월), (2012.11월), (2019.3월)
라오스	(2004.11월), (2016.9월), (2019.9월)
미얀마	(2012.5월), (2014.11월), (2019.9월)
태 국	(2003.10월), (2009.4월), (2009.10월), (2012.11월), (2019.9월)
베트남	(2004.10월), (2006.11월), (2009.10월), (2010.10월), (2013.9월), (2017.11월), (2018.3월)

- 메콩 5개국 정상의 한국 방문(2003~현재)

국가명	메콩 5개국 정상의 방한
캄보디아	(2006.3월), (2008.2월), (2009.6월), (2014.12월)
라오스	(2008.6월), (2009.6월), (2012.7월), (2013.11월), (2014.12월)
미얀마	(2006.3월), (2008.2월), (2009.6월), (2012.10월), (2014.12월)
태 국	(2003.8월), (2009.6월), (2012.3월), (2013.2월), (2014.12월)
베트남	(2003.9월), (2007.11월), (2009.6월), (2010.11월), (2012.3월), (2014.12월)

-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2019.11.27., 부산) 계기 메콩 5개국 정상방한 예정

#### ■ 한-메콩 개별 국가 간 관계의 발전

- 캄보디아
  - 1970. 5. 외교 관계 수립
  - 1975. 4. 캄보디아 공산화에 따라 대사관 철수
  - 1996. 5. 대표부 설치 합의
  - 1997.10. 외교 관계 재개, 상주대사관 설치
  - 2011 주한 캄보디아대사관 설치
  - 2014 한-캄보디아 정상회의 개최
- 라오스
  - 1974. 6. 외교 관계 수립
  - 1975. 7. 라오스 공산화로 단교

- 1995.10. 외교 관계 재개
- 1996. 9. 주라오스 한국대사관 설치
- 2001. 1. 주한 라오스대사관 설치
- 2013.11. 한-라오스 정상회담 개최 (서울)
- 2016. 9. 한-라오스 정상회담 개최 (비엔티안)
- 2018.11. 한-라오스 정상회담 개최 (싱가포르)
- 2019. 9. 한-라오스 정상회담 개최 (비엔티안)
- 미얀마
  - 1961. 7. 영사 관계 수립
  - 1962. 9. 주양곤 총영사관 개설
  - 1975. 5. 미얀마 수교  
대사급 격상 (주양곤 총영사관→주버마 대사관으로 격상)
  - 우리 정상의 미얀마방문(2012·2014·2019년), 미얀마 정상의방한(2009·2012·2014년) 등 교류 지속
- 태 국
  - 1958.10. 수교
  - 1960. 3. 주태국 한국대사관 설치
  - 1961. 7. 주한 태국대사관 설치
  - 2007. 7. 치앙마이 명예영사관 설치
  - 2008. 7. 푸켓 명예영사관 설치
  - 2012.11. 한-태 정상회의 계기, 한-태 전략적 동반자 관계 MOU 체결

- 베트남
  - 1956 베트남공화국과 수교
  - 1975 사이공 함락으로 단교
  - 1992.12.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재수교, 상주대사관 설치
  - 2001. 8. 한-베트남 정상, '한-베트남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구축 등 7개 항의 공동성명' 채택
  - 2009.10. 한-베트남 정상, '한-베트남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 채택

### ■ 한-메콩 비전 발표

- 2019년 9월 메콩 3개국(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 시 '메콩 비전' 발표
- 메콩 국가와 함께 할 세 가지 공동번영 방안으로 ▲경험을 공유하는 번영 ▲지속가능한 번영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 번영 제시



한-메콩 비전을 발표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의 '한-메콩 비전' 주요 내용(9.5, 라오스)

\* 동남아시아 순방(9월, 태국·미얀마·라오스)을 마무리하며 '3대 한-메콩 공동번영 방안' 발표

- ① (경험을 공유하는 번영) ▲ 농촌개발 경험을 토대로 메콩국 경제발전을 위한 농촌개발사업 지원 ▲ 미얀마개발연구원(MDI) ▲ 미얀마무역진흥기구(MYANTRADE),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설립 지원 등을 통한 인재 양성, 기술공유, 4차 산업혁명 대응 지원
- ② (지속가능한 번영) ▲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로부터 보호 ▲ 메콩 생명 자원을 바이오·의료 등 녹색성장으로 연결 ▲ 산림보존·수자원 관리 협력
- ③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번영) ▲ 공동번영을 위한 연계성 강화 ▲ 평등한 협력 ▲ 개발격차 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도로·교량·철도·항만 건설 지원 ▲ 인프라·농업·ICT·인적자원개발 기반 위에 문화관광 협력을 토대로 상호 이해 증진 및 아세안 평화를 위한 협력 확대 (경제협력을 넘어선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

## 2) 경제·통상 분야

## 가. 교역

- 2018년 기준 한-메콩 총 교역액은 845억 달러
- 한-메콩 간 총 교역은 2009년 세계 금융·경제 위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
- 2018년 기준, 국별로는 교역량 기준 베트남이 메콩 5개국은 물론 아세안 중에서도 1위(약 683억 달러)를 기록, 이어 태국(140억 달러), 미얀마(11억 달러), 캄보디아(10억 달러), 라오스(1억 달러) 순

(단위 : 천 달러)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캄보디아	538,123	719,654	750,959	848,413	869,292	812,629	865,172	974,903
라오스	158,787	176,386	199,532	174,072	198,787	149,156	119,531	114,080
미얀마	965,423	1,682,056	1,192,878	1,380,025	1,165,574	1,219,383	1,036,510	1,070,642
태국	13,872,326	13,574,327	13,302,659	12,943,918	11,215,960	11,044,339	12,671,715	14,087,437
베트남	18,549,168	21,665,221	28,262,775	30,342,015	37,575,581	45,125,611	63,930,831	68,265,483
합계	34,083,827	37,817,644	43,708,803	45,688,433	51,025,194	58,351,118	78,623,759	84,512,545

출처 : 한국무역협회(K-stat),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

## 나. 투자

- 2018년 기준, 한국은 메콩에 약 37.8억 달러 투자
- 2009년 약 12.3억 달러에서 2018년 약 37.8억 달러(약 3.1배)로 증가

- 2018년 기준, 국별로는 투자금액 기준 베트남(약 31.6억 달러), 캄보디아(2.8억 달러), 미얀마(2.1억 달러), 태국(9,500만 달러), 라오스(37,00만 달러) 순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캄보디아	103	96	82	65	43	215	137	276
라오스	14	27	67	36	27	59	58	37
미얀마	423	328	513	312	244	363	280	213
태국	584	87	150	182	109	112	106	95
베트남	1,056	982	1,152	1,660	1,612	2,374	1,973	3,162
합계	2,180	1,520	1,964	2,255	2,035	3,123	2,554	3,783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투자 금액 : 송금 기준(실제 투자액)

- 인프라 수주

(단위 : 천 달러)

국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캄보디아	105,787	108,268	141,847	30,696	153,868	195,178	32,693	233,192
라오스	3,420	9,346	763,349	14,205	16,244	28,575	91,348	4,337
미얀마	23,043	-	13,351	159,529	104,109	61,681	256,416	131,621
태국	376,432	1,162,989	979,270	392,822	335,630	80,154	758,888	1,971,389
베트남	3,459,061	3,416,574	4,403,632	3,387,316	4,497,133	2,315,302	1,205,329	4,403,520
합계	3,967,743	4,697,177	6,301,499	3,984,568	5,106,984	2,680,890	2,344,674	6,744,059

※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 서비스

주 : 연도별 금액은 공사 계약 금액 기준

## 다.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 (1) 추진 경위

- 2012년 7월 제2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메콩 간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을 강화하고 양측 협력의 실질 성과 거양을 위해서는 민간 교류 및 투자 활성화가 긴요하다는 공통의 인식에서 발족
- 태국 방콕에서 '제1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2013)된 이래 메콩 5개국과 한국에서 순차적으로 연례 개최 중
- 메콩 및 한국의 기업들이 업종별(제조업, 서비스, 농수산물 임가공, 기타)로 나누어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 비즈니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시장 진출 가능성 타진

### (2)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개최 현황

- 제1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2013.5월, 방콕)
  - 주제 :
- 제2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2014.5월, 하노이)
  - 주제 : 메콩 지역의 가치-공급 사슬 연계성 강화 (Strengthening Value-Supply Chains Connectivity in the Mekong Sub-region)
  - 메콩 지역 내 전반적 투자 환경을 분석하고, 한국과 메콩 간의 가치-공급 사슬 연계성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 제3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2015.7월, 프놈펜)
  - 주제 :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 : 한-메콩 무역·투자 기회 (Launch of AEC : Opportunities for Mekong- ROK Trade and Investment)
  - 메콩 지역 내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하고, 한국과 메콩 중소기업 간의 무역·투자 기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
- 제4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2016.6월, 양곤)
  - 주제 : 메콩 지역에서 투자 기회 현실화(Realizing Investment Opportunities in Mekong - Subregion)
- 제5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2017.10월, 비엔티안)
  - 주제 : 메콩 지역과 한국의 중소기업 및 관광(식품·농업)산업 진흥 (Promot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ourism (and Food and Agricultural) Industry in Mekong Countries and Republic of Korea)
  - 한-메콩 간 관광 분야 민간협력 증진을 위해 메콩 국가들의 기업 환경을 소개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진출 사례와 애로사항 해결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기회 제공



제4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2016.6월)



제5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2017.10월)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2018.12월)

제6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2018.12월, 서울)

- 주제 : 메콩 중소기업의 친환경 혁신 협력을 통한 상생번영 기회 창출  
(Promoting Co-prosperity through Eco-friendly Innovation amo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the Mekong Countries and the Republic of Korea)
- 한-메콩 지역의 기업 환경 및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 공유

### 메콩강 중소기업(MSMEs)

동남아시아 메콩 5개국의 비즈니스 대부분은 중소기업(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SMEs)이 차지하고 있다. 메콩 지역 중소기업에게 한국은 사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식, 투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파트너이며, 한국의 중소기업에게 메콩 지역은 경제발전의 잠재력이 큰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 중이다.

따라서 한-메콩 간 중소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를 위한 경제협력 플랫폼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이 2013년 이래 매년 개최되며 한-메콩 기업 간 실질적 네트워킹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2019년 서울대학교에서 동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2019.10월)

- 제7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2019.10월, 방콕)
  - 주제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Promot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Innovation Capacity)
  - 각국의 기업 환경을 소하는 한편,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
  - ▲중소기업 혁신, 경쟁력과 경제성장 ▲중소기업의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진행

### 3) 개발 협력 분야

#### ■ 대메콩 ODA 지원 현황

- 메콩 5개국에 대해 1987~2017년간 총 32.9억 달러 지원
  - 무상 ODA 총 12.4억 달러 지원
  - 유상 ODA 총 20.5억 달러 지원
- 1987~2017년 메콩 5개국에 대한 ODA 지원 누적액은 32억 8,897만 달러로, 우리나라의 양자 ODA 누적 총액(154억 6,054만 달러) 중 약 21.2%에 해당
  - ※ 무상 ODA : 12억 3,919만 달러, 양자무상 ODA(90억 4,939만 달러)의 약 13.7%
  - ※ 유상 ODA : 20억 4,978만 달러, 양자유상 ODA(64억 1,119만 달러)의 약 32.0%
- 2017년 메콩 5개국에 대한 ODA 지원액은 3억 9,783만 달러로, 2017년 우리나라의 양자 ODA 총액(17억 225만 달러) 중 약 23.8%에 해당
  - ※ 무상 ODA : 1억 5,124만 달러, 양자무상 ODA(10억 3,392만 달러)의 약 14.6%
  - ※ 유상 ODA : 2억 4,659만 달러, 양자유상 ODA(6억 6,833만 달러)의 약 36.9%

## 한국의 대 메콩 ODA 지원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1987~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총계	계	917.64	254.49	301.15	351.57	317.48	412.3	336.51	397.83	3288.97
	무상	379.62	81.08	94.38	100.06	134.97	138.66	159.18	151.24	1239.19
	유상	538.02	173.41	206.77	251.51	182.51	273.64	177.33	246.59	2049.78
캄보디아	계	217.62	62.23	58.11	63.85	72.53	69.5	57.32	71.13	672.29
	무상	78.02	23.14	35.47	32.64	35.94	37.47	36.93	31.57	311.18
	유상	139.6	39.09	22.64	31.21	36.59	32.02	20.39	39.56	361.1
라오스	계	116.03	33.48	23.52	27.12	28.98	88.23	37.66	56.2	411.24
	무상	61.20	15.53	13.09	13.33	19.77	22.45	27.8	28.06	201.22
	유상	54.83	17.95	10.43	13.79	9.21	65.78	9.85	28.14	210.00
미얀마	계	106.49	7.86	9.04	14.8	25.48	23.91	47.31	77.61	312.5
	무상	36.62	7.86	9.04	14.8	25.48	22.82	33.68	35.58	185.88
	유상	69.87	-	-	-	-	1.1	13.63	42.03	126.63
태국	계	27.51	4.47	2.89	3.34	3.44	4.73	8.83	5.16	60.37
	무상	27.51	4.47	2.89	3.34	3.44	4.73	8.83	5.16	60.37
	유상	-	-	-	-	-	-	-	-	-
베트남	계	449.99	146.45	207.59	242.46	187.05	225.93	185.4	187.73	1832.6
	무상	176.28	30.08	33.89	35.95	50.34	51.19	51.94	50.87	480.54
	유상	273.71	116.37	173.7	206.51	136.71	174.74	133.46	136.86	1352.06

출처 : OECD.Stat

##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추진

- 아세안 선발 6개국과 후발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간의 개발격차 완화 및 지역경제 통합을 위한 이니셔티브
  - 아세안은 10개 대화상대국을 포함한 여타 공여국들에 지원 요청
  - ※ IAI :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 IAI 1차 지원(2003~2007) 실적

대상 국가	미얀마·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사업명 (기간/금액)	아세안 5개국 철도 연결 타당성 조사 사업 (2004~2006/ 120만 달러)	상품·서비스 무역 능력 배양 (2004~2005/ 87만 달러)	전자정부 구축 지원사업 (2004~2005/ 95만 달러)	정보통신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2004~2005/ 95만 달러)	정보통신 입법지원사업 (2004~2005/ 86만 달러)

- IAI 2차 지원(2008~2012) 추진 현황
  - 2007년 11월 싱가포르 개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5년간 500만 달러 추가 지원 계획 발표
  - 2010년 8월 아세안 사무국과의 협의를 통해 한-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 사업 지원 확정
  - 2012년 8월 CLMV 대상 이러닝센터 구축, 연수 사업 추진
- IAI Work Plan III(2016~2020) 참여 계획
  - 2016년 9월 IAI Work Plan III 채택 및 6차 IAI-대화상대국 협의회 계기 IAI 절차 사후승인→사전승인으로 변경
  - 현재 아세안 사무국이 신청한 TVET(기술직업 교육훈련) 분야 참여 추진 중
- 2019년 10월 제9차 IAI TF-아세안 대화상대국 회의에서 IAI 3차 작업 계획 (2016~2020) 추진 현황 확인
  - 2019년 6월 기준, 5대 전략 분야(①식품·농업, ②무역 활성화, ③중소기업, ④교육, ⑤보건·웰빙)를 중심으로 101개 프로젝트에 2,600만 달러가 집행 되어 73.1% 이행을 집계

#### 4) 한-메콩 협력기금

- 메콩 5개국과의 중장기 협력사업 이행을 위해 양자 ODA 이외에 별도의 협력기금 신설 필요성 제기
- 한-메콩 간 협력 증진 및 교류 확대를 위해 설립
- 우리측은 2013~2019년간 총 742만 달러 공여(총 20개의 사업 지원)
- 공여액의 지속적 증가
  - 2018년 112만 달러 → 2019년 200만 달러 → 2020년 300만 달러 증액 추진 중
- 기금 출범 경과
  - 2012년 7월 제2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메콩 협력기금」 신설 합의
  - 2013년 6월 제3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메콩 협력기금 TOR」 채택 환영
  - 동 TOR에 따라 자발적 국제기구 분담금 형태로 매년 메콩연구소 (Mekong Institute, 태국 소재)에 기탁, 기금 사무국 역할 부여

#### ■ 협력기금 지원 사업 현황

- 제1차(2016), 제2차(2017), 제3차(2019) 사업 공모를 통해 한-메콩 6대 우선협력 분야(인프라, ICT, 녹색성장, 수자원, 농업, 인적자원 개발)에 해당하는 사업 총 20건 지원

#### 메콩강 보트투어

메콩강에서 배는 현지인의 주된 교통수단이기도 하지만,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관광상품이기도 하다. 메콩강 보트투어는 상류부터 하류 유역국을 거치는 장기 크루즈 투어부터 약 1~3일 동안 강 지류를 누비는 보트 투어까지 다양하다.

보트투어를 통해 각국의 관광명소와 문화유산을 방문할 뿐만 아니라, 메콩강 자연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현지인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엿볼 수 있다.





# III

## 역외 국가와의 협력

1. 미-메콩 협력
2. 일-메콩 협력
3. 중-메콩 협력
4. 인도-메콩 협력
5. 여타 국가와의 협력

# 1. 미-메콩 협력

## ■ 미-메콩 하류지역 협력 이니셔티브(Lower Mekong Initiatives, LMI)

- 오바마 행정부, 지정학적 관점에서 메콩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에 대한 관심 증대 / 중국의 역내 영향력 고려 하에 2009년 LMI 창설 주도
- 2009년 7월 미국, 미얀마를 제외한 메콩 4개국(베트남,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과 외교장관회의 개최
  - 미-메콩 하류 지역 협력 이니셔티브(US Lower Mekong Initiative) 제안
  - 환경, 보건, 연계성, 교육을 중점협력 분야로 제시
- 2009년 출범 후 초기에는 미국국제개발처(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가 LMI를 적극적으로 주도했으나, 2012년부터 비영리조직(LMI Coordination Hub)으로 하여금 LMI를 주관하도록 변경
- 2012년 7월 제5차 회의에서 미얀마를 협력 대상으로 포함
- 매년 지역실무그룹회의(분야별/수시), 고위관리회의(연2회) 및 외교장관 회의(연 1회) 개최
  - 현재 ①보건, ②연계성, ③교육, ④에너지 안보, ⑤환경과 물, ⑥농업과 식량안보의 6가지 중점분야(pillar)를 중심으로 LMI 이행 마스터플랜 (2016~2020) 추진 중

- 2018년 8월 제11차 LMI 장관의 공동성명
  - ▲물, 에너지, 식량, 환경 넥서스 ▲인적개발과 연계성 ▲LMI 간 지속적인 협력 필요성 강조
- 2019년 8월 LMI 10주년 기념 공동성명
  - ▲역내 연결성·재통합 증진에 대한 공약 재확인 ▲미국, 2009~2019년 간 38억 달러 원조 제공 ▲메콩 수자원정보 이니셔티브(Mekong Water Data Initiative, MWDI) 추진 평가 ▲ACMECS와 LMI 간 협력 방안 모색 ▲인프라·재난대응·전력·수력·교육훈련·투자증진·과학자교류·보건·상법·여성기업가양성 등 분야 15개 주력 프로젝트를 통한 성과 평가

## ■ 메콩우호국회의(Friends of Lower Mekong, FLM)

- 개최 배경 : 2011년 4월 한·미 차관보급 전략대화 시, 미국측이 대 메콩 주요 공여국 간 정책 조정을 위한 회의 신설 제안
- 참가국 :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미얀마
  - 메콩 5개국 :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미얀마
  - 6개 공여국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EU
  - 3개 국제기구 :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아세안 사무국
- 의제 : ▲각국의 대메콩 협력 현황 및 향후 지원 계획 공유 ▲공여국 간 대메콩 협력 조율 방안 논의
- 2011년 7월 제1차 외교장관회의 : 각 공여국들의 메콩 지역 개발 참여 현황 공유 및 미얀마의 옵서버 참석을 환영

- 2012년 7월 제2차 외교장관회의 : 메콩우호국회의의 향후 추진 방향을 담은 '제2차 메콩우호국 외교장관회의 선언문' 채택
  - 메콩우호국회의 운영 구조를 정부간 회의(외교장관회의/고위급회의)와 원조기관 간 회의로 구분하여 병행 추진하기로 합의
  - 메콩강위원회(MRC)의 전문성 강화와 역내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MRC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합의
- 2013년 7월 제3차 외교장관회의 : 공여국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대메콩 협력의 중복을 방지하고 공동의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
  - 메콩강위원회(MRC)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 미국은 제2차 메콩우호국 외교장관회의 시, 메콩강위원회(MRC)의 역량강화를 위해 100만 달러, 향후 3년간 메콩 지역 개발을 위해 5천만 달러 지원 공약 발표
  - 각 공여국들의 대메콩 지역 개발 정책 및 사업 정보 공유
- 2014년 8월 제4차 외교장관회의 : 메콩 하류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역내 과제와 협력 방안 논의
  - 미국은 라오스와 공동으로 각 회원국 소관 부처 차관급 관료들이 참석 하는 메콩우호국 임시회의 개최를 제안
- 2015년 2월 임시회의(Extraordinary Meeting) : ▲물, 에너지 및 식량안보 간 연계성(nexus) 강조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경제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 2015년 6월 고위관리회의(SOM) : FLM 관련 회의를 연 4회(FLM SOM 2회, 외교장관회의 1회, 수시 개최 SOM 1회)에서 연 2회(FLM SOM 1회, FLM 실무그룹회의(Working Group Meeting, WGM) 1회)로 조정

- 2016년 5월 고위관리회의 : ▲메콩 협력 파트너 간 사업 중복 방지 및 효과성 제고 방안 ▲미국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파트너십(SIP)' 사업 추진 방안 논의
- 2017년 5월 고위관리회의 : ▲SIP 작업계획(Workplan 2017~2018) 이행 방안 논의
- 2018년 5월 고위관리회의 : LMI·ACMECS 등 역내 메콩 관련 협력체 간 연계 중요성 강조
- 2019년 5월 고위관리회의 : LMI의 메콩 수자원 데이터 이니셔티브 및 메콩 수자원 데이터 전문가 그룹 회의(2019.4월, 워싱턴) 평가
- 2019년 8월 FLM 협력 강화를 위한 장관급 공동성명
  - ▲메콩 국가들과의 관여 전략적 중요성 인식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공동의 원칙 및 가치에 대한 공약 재확인 ▲FLM 개발 파트너국의 접근 방식에서 상호보완성 추구 ▲메콩 지역 지원에서 FLM 공동의 노력 환영

## 2. 일-메콩 협력

- 1990년대 초 인도차이나를 대상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GMS·MRC 등 메콩 지역 개발 협의체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동 지역에 대한 진출과 영향력 확대를 모색
- 2009년 1월 메콩 지역 5개국과 제1차 일-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
- 2009년 11월 제1차 일-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도쿄 선언」 및 「63개 행동계획」 발표
  - 동 선언 및 행동계획은 메콩 지역의 종합적 발전, 환경·기후변화 대응, 협력·교류 확대 등 3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가 주요 내용
- 2012년 4월 제4차 일-메콩 정상회의 개최, 향후 3년간 6,000억 엔의 ODA 추가 지원 계획 및 3대 협력 축 (▲메콩 지역 연계성 강화 ▲투자·교역 촉진 ▲재난관리)을 공표
  - ※ 일본은 연계성 강화 차원에서 특히, 태국-미얀마 간 동서회랑과 태국-라오스 간 남부회랑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바, 이는 태국을 거점으로 여타 메콩 지역에 진출하기 위한 포석
- 2018년 10월 일본-메콩 정상회의에서 「도쿄 전략 2018」 선언 및 협력 이니셔티브 발표
  - 2016~2018년 3년 동안 7,500억 엔의 ODA 자금 지원
  - 향후 협력 방향으로 ▲활력 있고 효과적인 연계성(물리적 연계성, 소프트 연계성, 산업 연계성) ▲사람 중심의 사회(인적자원 개발, 헬스케어, 교육, 법률 협력) ▲녹색메콩(Green Mekong)의 실현(재난 위험 감소와 기후

변화, 수자원 경영, 순환경제, 수중 물고기 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제시

- 이를 위한 협력 이니셔티브로, '메콩-일본 협력과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 '메콩-일본 협력과 인도양과 태평양의 자유무역', '메콩-일본 협력과 ACMECS'를 강조

### ■ 글로벌 금융 파트너십센터(Global Financial Partnership Center)

- 2016년 4월 일본 금융지원청(FSA)이 설립
- 아시아 국가의 금융 당국자, 증권 관계자, 보험 관계자를 초청하여 교류 하는 사업으로 시작, 특히 메콩 국가의 관련 공무원과의 파트너십 구축으로 일본 기업의 메콩 지역 인프라 사업 활성화 지원

### ■ '2020년까지 녹색메콩을 위한 10년'의 출구전략으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연계

- 2000년대 자국 경제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메콩 지역의 에너지와 농업 및 자원 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환경과 기후변화를 강조하는 녹색메콩 협력 프레임(Green Mekong) 구축
- 도쿄 전략 2018에서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연계한 '메콩-일본 협력과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로 전환함으로써 녹색메콩의 출구 전략으로서 SDGs 활용



### 3. 중-메콩 협력

- 중국은 서부 대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운남성 등을 본격 개발하면서, 인접 지역인 메콩 지역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 메콩 지역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 배후지라는 지정학적 중요성과 함께 큰 경제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 이후 중국 남부 지역과 메콩 지역 국가 간 교역 및 경제 교류가 확대되어 왔으며, 특히 ▲운남~라오스~방콕 1,800km 구간 개보수 사업 ▲중-라오스 철도 건설 사업(중국 모한~라오스 비엔티안 간 철도 건설) 등 추진 중
- 다만, 중국은 국가 차원의 적극적 움직임이 인근 국가들의 경계심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을 의식, GMS(Greater Mekong Subregion Economic Cooperation) 등 기존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형식을 적극 활용

#### ■ 란창-메콩 협력(Lancang-Mekong Cooperation : LMC)

- 2012년 태국이 제시한 란창-메콩 서브지역(sub-region) 지속가능 발전 이니셔티브가 란창-메콩 협력(LMC)의 모티브가 되었으며, 2014년 제 17차 중국-ASEAN 정상회의 시 중국이 LMC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관련 국가들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LMC 정식 출범
- 이후 2015년 LMC 제1차 고위관료회의(SOM)(4월, 중국 베이징) 및 제1차 외교장관회의(11월, 중국 운남) 개최

- 제1차 외교장관회의에서 ▲정치 및 안보 ▲경제 및 지속가능개발 ▲사회 및 인문 교류 등 란창-메콩 협력의 3대 축 제시

※ 총 4회 외교장관 회의 개최(2019.10월 기준) : 제1차 회의(2015.11월, 중국 윈난성), 제2차(2016.12월, 캄보디아), 제3차(2017.12월, 운남), 제4차(2018.12월, 라오스)

- 2016년 3월 제1차 란창-메콩 협력 정상회의 개최(중국 쑤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를 강화하고 아세안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성과 사업 발굴
  - 3대 축과 더불어 5대 우선협력 분야(▲상호 연결성 ▲생산 능력 ▲국경 간 경제 협력 ▲수자원 ▲농업 및 빈곤 감소) 제시
  - LMC 협력기금 설립 (2017~2018년간 300여 개 프로젝트 지원)
  - 한편, 중국은 수자원 경영, 빈곤 감소, 공공 보건, 인프라, 과학 기술, 인력 교류 분야 등 사업에서 다른 원조기구의 도움 없이 중국의 지원으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나가는 「LMC 조기수확 프로젝트」를 제안했으며, 이에 메콩 5개국이 동의
- 2017년 3월, 중국은 외교부 산하에 LMC 중국 사무국 설립
- 2018년 1월, LMC 2차 정상회의 개최(프놈펜)
  - 기존의 '3+5' 프레임에서 한층 더 나아간 '3+5+X' 모델 선언

#### ■ 민간싱크탱크(Global Center for Mekong Studies, GCMs) 설립

- 2017년 9월 메콩 및 LMC 연구를 위한 정책 연구기관인 GCMs 설립 (캄보디아 프놈펜)

- 2018년 3월 제1차 GCMs 포럼 개최(북경), 메콩 5개국과 MRC(Mekong River Commission), ADB, ASEAN 관계자 등 참여  
※ 참고자료 : 『란창-메콩 협력』(외교부 산하 란창-메콩 협력 사무국 발간 / 2019.3월)
- 2018년 6월 라오스 외교부 외교연구소 내에 GCMs-Laos이 설립, 2018~2020년간 라오스는 란창-메콩 협력 공동의장국으로 LMC 회원국 간 협력사업, 2018~2020 행동계획 수립 등 주도

### 메콩과 강대국 진출 열전

메콩 지역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강대국의 외교·경제전이 벌어지고 있다. 메콩 5개국의 연간 6%에 달하는 고속 경제성장률이 대변하듯, 메콩 지역은 브릭스(BRICs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를 잇는 신흥개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도와 중국을 잇는 메콩 지역은 그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중국과 미국이 특히 경쟁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지역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1990년대부터 유역국으로서의 이점을 활용하여 댐·수력발전소 건설 등 수자원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메콩 하류 지역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미국은 2007년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며 그 영향력을 가세하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등 세계 강대국들은 각자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등 원조와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 4. 인도-메콩 협력

### ■ Mekong-Ganga Cooperation (MGC)

- 개최 배경 : 2000년 11월 1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제1차 MGC 장관회의(Ministerial Meeting)에서 설립
- 참 가 국 : 인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 협력 분야 : ▲관광 ▲문화 ▲교육 ▲교통 ▲커뮤니케이션  
- 갠지스강과 메콩강 유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간의 상업적·문화적 교류 촉진이 목적
- 제1차 MGC장관회의 개최(2000.11월, 라오스 비엔티안)  
- 주요 협력 분야에 대한 「비엔티안 선언(Vientiane Declaration)」 채택
- 제2차 MGC 장관회의 개최(2001.7월 베트남 하노이)  
- 2001.7.~2007.7.까지의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하노이 행동계획(Hanoi Programme of Action)」 채택
- 제3차 MGC 장관회의 개최(2003.6월, 캄보디아 프놈펜)  
- 「프놈펜 로드맵(Phnom Penh Roadmap)」 채택
- 제4차 MGC 장관회의 개최(2007.1월, 필리핀 세부)  
- 의장국이 태국에서 인도로 이전

- 제5차 MGC 장관회의 개최(2007.8월, 필리핀 마닐라)
  - 2008~2011년까지 MGC 장관회의 미개최
- 제6차 MGC 장관회의 개최(2012.9월, 인도 뉴델리)
  - 「프놈펜 로드맵(Phnom Penh Roadmap)」 채택
  - 2012년 9월 3일 MGC 고위관리회의와 전후로 개최
  - 4대 주요 협력 분야와 더불어 ▲SME(Small and Medium Enterprises) 협력 ▲쌀 생식질 보존 사업(Rice Germplasm conservation) ▲건강 실무그룹 구축사업 ▲인도 나란다 대학교와의 Common Archival Resource Center(CARC) 설립 ▲인도-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QIP(Quick Impact Project) 추진
- 제7차 MGC 장관회의 개최(2016.7월, 라오스 비엔티안)
- 제8차 MGC 장관회의 개최(2017.8월, 필리핀 마닐라)
- 제9차 MGC 장관회의 개최(2018.8월, 싱가포르.)
  - 2018년 8월 1일 제10차 MGC 고위관리회의와 전후로 개최
- 제10차 MGC 장관회의 개최(2019.8월, 태국 방콕)
  - 2019년 7월 9일 인도 뉴델리에서의 제11차 MGC 고위관리회의에 후속하여 개최
  - 「MGC 행동계획(2019~2022)」 채택
  - 7대 협력 분야 : ▲관광 ▲문화 ▲교육 ▲공중보건 및 전통의료 ▲MSMEs 간 협력(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수자원 관리 ▲과학 기술 ▲기술 개발 및 역량 구축

## 5. 여타 국가와의 협력

- 호주·뉴질랜드·EU 등도 메콩 지역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수자원 개발, 인적자원 개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중

### ■ 호주

- 대메콩 지역 외교는 대부분 공적개발원조(ODA)에 의해 지원
- ▲수자원 ▲인프라 ▲전염병 방지 ▲에너지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메콩 지역과의 협력 강화 추진
- 2009년 7월 아세안-호주 확대외무장관회의 시, 수자원 관리 개선을 위해 MRC에 1,300만 달러, 교통회랑을 통한 교역 증진을 위해 1,200만 달러 지원 발표
- 메콩 내 국경간수송조약(CBTA) 지원
- 메콩 지역과의 별도의 협의체는 없으며, MRC 등 기존 메콩 내 협의체에 참여하거나 ADB·WB 등과의 공동출자를 통해 메콩 지역 개발에 참여

### ■ 뉴질랜드

- 대메콩 지역 외교는 대부분 공적개발원조(ODA)에 의해 지원

- ▲인적자원 개발 ▲인신매매 ▲인도적 지원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메콩 지역과의 협력 강화 추진
- 메콩 지역과의 별도의 협의체는 없으며, 메콩연구소(MI) 등과의 협력을 통해 메콩 지역 지원

## ■ EU

- 글로벌 기후변화 관련 메콩 지역과의 협력, 쌀 집중화 시스템을 통한 메콩과의 협력 등 특정 주제 중심으로 메콩 협력 사업 추진
- EU는 5년간 495만 유로를 지원해 메콩강위원회(MRC)와의 협력으로 메콩 지역 농가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사업 추진